십자가 자폐증과 성령

(고린도전서 2:1~5)

1.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2.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3.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4.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5.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십자가 자폐증과 성령>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십자가 자폐증과 성령'

자폐증의 공식적인 이름은 발달장애에 따른 아동기증후군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나이에 맞게 정상적인 발달을 하지 못함으로써 나타나는 증후군이 자폐증입니다.

자폐(自閉)는 말 그대로 자신의 세계에 갇혀있다는 뜻입니다. 외부에서 가둔 것이 아니라 인격 안에서부터 자신을 가두었다는 의미입니다. 가두어진 인격의 특징은 다른 사람과 상호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처지나 형편에 대해서 공감하거나 반응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언어적 능력이 기초적인 수준에 불과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상태를 뜻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지정의 활동의 결과가 언어를 통해 타인에게 전달되기 나름인데 언어의 제약을 받다보니 지정의 활동을 표현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의 활동에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이 힘들고 사회적 신호에 무감각해집니다. 특정한 행동을 반복하고 관심 있는 것에만 강박적으로 빠져드는 경향을 보입니다.

한편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드물게 자폐증 환자들에게 서번트 신드롬(Savant syndrome)이라는 증상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서번트는 학자, 석학이라는 의미로써 우리식으로 말하면 백치천재입니다. 관심 있는 한 두 개의 주제에 과도한 집중으로 상황이 발전되어서 천재적 능력을 보이는 상태입니다. 기차시간표나 전화번호부책을 다 외워버리는 대단한 기억력을 보이거나 탁월한 음악적 재능 등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더스틴 호프만과 톰 크루즈가 주연으로 출연한 '레인 맨(Rain Man)'이라는 영화가 대표적입니다. 자폐증으로 평생을 정신병원에서 살아온 형 레이몬드는 동생의 눈에는 너무나 경이롭게 보입니다. 한 번 보거나 들은 것은 결코 잊지 않고 바닥에 성냥개비 뭉치가 떨어지면 그것이 몇 개인지 순식간에 파악합니다. 이 레인 맨은 킴 픽이라는 실제 인물을 모델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생후 20개월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고 한 번 읽은 책은 모조리 기억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TV 쇼에 출연해서 이러한 능력을 검증받았는데, 죽기 전까지 1만 2천 권의 책을 언제 어디에서나 기억해 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한 번 들은 곡조도 평생 잊지 않았기 때문에 장애로 인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손으로 피아노를 아주 멋지게 연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의 IQ는 87이었다고 합니다.

이 서번트 신드롬을 소재로 한 드라마도 있었습니다. 2013년에 방영되었던 굿 닥터입니다. 최근에는 미국에서 판권을 사서 리메이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강원도 산골에 살던 한 자폐아의 뛰어난 능력을 군의관이 발굴합니다. 지방대 의과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이 자폐증 의사를 서울에 있는 최고 병원의 소아과에서 채용하게 됩니다. 모든 의사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이 자폐증 의사에게 병원 이사장이 질문을 합니다. 왜 소아과 의사가 되기를 원하느냐고 묻자, 어릴 때에 길렀던 토끼가 죽는 것을 보았고, 형과 같이 탄광에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해 형이 죽게 되었던 것을 회상하면서 "어린이는 살아서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대답합니다. 단지 병에 걸리고 사고를 당한 어린이들을 구하고 싶어서 의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변에서는 주인공을 어디까지나 정상인에 미치지 못하는 존재이거나 로봇처럼 여깁니다.
주인공은 죽어가던 형이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을 보고 살고 싶어 했다는 표현으로 강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찾아오는 어린이들의 모든 행동을 살고 싶어 하는 의지로 받아들였습니다. 결코 로봇처럼 살려야 한다는 명령에 의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살고 싶어 한다는 마음을 받아들인 결과 의사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언어적 능력이 부족하다보니 모든 일 앞에서도 '어린이는 살아서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말을 할 뿐입니다. 이렇게 소통이 안 되니 멸시를 받고 갈등이 빚어져서 사고가 생기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린이를 살리려고 다른 과에 들어가 권한 밖의 행동을 했다가 충돌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수한 생명존중의 사상으로 환자를 대하는 주인공을 접하며 주변인들이 서서히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소아과병동이 변해가고 냉정하고 정확한 판단만을 요구했던 교수의 마음이 바뀌고, 출세와 승진만을 위해서 음모를 꾸미는 것을 일상으로 삼던 과장의 마음도 바뀝니다. '어린이는 살아서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한 가지 생각으로 만사를 대처하는 자폐증 의사가 만나는 사람마다 변화를 일으키더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병원 전체를 집어삼키려는 음모에서 병원을 구출해내게 됩니다.

작가는 의사가 가져야 할 본연의 마음가짐을 그려내기 위해 자폐증 의사라는 극단적 상황을 연출합니다. 의사가 본래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는 생명존중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지위나 신분에 집착하게 되었고 승진과 돈이 침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자폐증이라는 극단의 상황을 통해 고발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치 자폐증 환자처럼 살아간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2절을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라고 하였습니다. 자발적으로 지적인 능력을 폐쇄하고 자폐증과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드라마 굿 닥터에서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폐증과 같은 순수함이 필요하다는 작가의 통찰이 빛났듯이, 사도 바울은 순수한 신앙을 갖기 위해 자폐의 상황으로 몰입해 들어갔던 것입니다.
좀 더 풀어서 해석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은 곧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즉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기에 내 마음을 드려야 한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나의 마음도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를 말하고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말하고 전하겠다는 것은 전도나 설교를 할 때는 물론이고 일상생활에서도 이것만을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발적 자폐증 환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한 가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기에 나는 예수께 마음을 드려야 한다.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도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읽고 해석했습니다. 그 결과 유대교의 경전이었던 구약 성경이 기독교의 경전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또 이 생각으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각 도시들은 관습과 풍습이 달랐고 영적 분위기와 처한 상황도 달랐지만 오직 이 한 가지 생각을 통해 모든 문제를 대처하였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울 서신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한 가지 생각이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로 전복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유럽 전체를 기독교 나라가 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한 가지 생각으로 전 세계에 기독교가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이 한 가지 생각으로 교회는 삽니다. 이 한 가지 생각으로 사는 사람의 삶은 에덴이 되고 약속의 땅 복지 가나안이 됩니다. 반면에 설교가 이루어지는 강단에서 이 한 가지를 놓친 교회는 소멸하게 됩니다. 또 이 한 가지 생각을 놓친 삶의 현장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바다가 되어버립니다. 이 한 가지 생각이 삶의 모든 방면의 문제의 해답이 되지만, 이 한 가지를 생각하지 못한다면 모든 문제에 대한 오답만이 주어지게 됩니다.
드라마 굿 닥터에서 '어린이는 살아서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하나의 생각이 진정한 의사의 모습을 만들었듯이, 사도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기에 그분께만 내 마음을 드렸는데 그 분이 십자가에서 죽는 바람에 내 마음도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생각을 통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생각으로 부딪치는데 천변만화(千變萬化)의 표현들이 나타나며 구약 성경도 신약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는 진리로 변모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에 대한 하나님 뜻에 맞는 대답들이 속속들이 주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 이 자폐증적 결단에 성령의 나타나심이 따르더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돈 문제가 발생해도 굿 닥터 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돈 문제가 발생했지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설령 돈 문제를 놓고 같이 고민하던 배우자가 짜증을 내더라도 마치 자폐증 환자처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고백해야만 합니다. 드라마 속에서 자폐증 의사를 주변 사람들이 싫어하고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그러나 이 의사는 모든 경우에 '어린이는 살아서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한 가지 생각으로 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 문제, 돈 문제, 나라 문제, 자녀 문제 등의 어떤 문제가 닥쳐도 자폐증 환자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라고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세상 사람들은 말이 안 통한다고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굿 닥터에 의해서 병동이 변하고 병원이 음모에서 구출되었던 것처럼, 자폐증 환자처럼 한 가지 고백을 고집해 나갈 때에 사도 바울로 인해 로마 제국이 죄악 속에서 기독교 국가로 뒤집히는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이 한 가지 고백에는 성령의 역사가 뒤따랐기 때문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자폐증 환자처럼 고집하고, 이외에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못 박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전했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는 것도 사실이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증언해야만 합니다. 증언이 필요한 이유는 법정에서는 증언을 통해 사건이 인정되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의 증언을 통해 현실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실이라는 증언함을 통해 듣는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보낼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접촉하고 마음이 맞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증언이 필요한 이유는 듣는 이들의 마음이 세상에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돈이 없다는 사실, 건강에 큰일이 났다는 사실,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 취직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 직장에서 승진을 해야만 한다는 사실 등에 온 마음이

닿아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 사람의 마음을 붙여야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렇기에 증언함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붙일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에 마음을 붙이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사건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온갖 문제로 가득 찬 세상을 현실로 삼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현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증언함에 있어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은 탁월함을 의미합니다. 이 탁월함에 대한 해석이 4절에 나타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전파할 때에 공감과 감동을 일으키는 설득력 있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말을 할 때에 공감과 감동과 설득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말할 필요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공감을 얻지 못하는 말, 감동을 주지 못하는 말, 설득시킬 수 없는 말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보았듯이 자폐증 환자들의 특징이 상호 공감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상대방을 설득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사로잡혀 있는 생각에 대해서만 말을 합니다. 드라마에서 다른 의사들은 돈에 관심이 있는데 이 자폐증 의사만이 어린이의 생명에 관심을 두었던 것과 같습니다. 상대가 무슨 말을 해도 이 자폐증 의사에게는 어린이는 살아야 한다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증언하되 멋진 말로 꾸미거나 사족을 달려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그 사람의 처지나 형편 혹은 기호나 가치관을 고려하지 않고 할 말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기에 예수께 마음을 드려야만 한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로 나의 마음도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한다. 당신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말이 전부였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하나님께 마음을 보내는 일이 결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멋진 말로 설득하고 공감과 감동을 자아내는 것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마음을 보내게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 마음을 드림으로써 이 세상에 대해 죽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도를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대화를 할 때에 상대는 하나님과 연관된 사실에 마음을 보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마음이 붙어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 사실이 마음에 현

실로 와 닿지 않습니다. 마음은 온통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에 향해있고, 소원하는 세상의 가치들을 얻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 공감과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돈을 벌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공감하고 감동하고 설득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증언은 단순히 공감이나 감동 혹은 설득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십자가를 전함으로써 성령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3절을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고 하였습니다.
천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도 바울이 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을까요?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도착하기 이전에 아테네에서 실패한 선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고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실패로 인해 의기소침해져서 약하고 두려워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반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아테네에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설교를 했고 그로 인해 실패하여 오늘 본문의 깨달음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아테네는 철학과 사상의 중심지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아테네에서 자신의 언변을 활용해 선교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을 배려하고 이해함을 통하여 공감과 감동이 일어나기를 바랐고, 설득을 통해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게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만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테네 사람들의 마음은 세상을 향해있었고 바울의 언변에 설득되지 않았으며 어떠한 공감과 감동과 설득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지 않았는데도 듣는 이들이 감동하고 공감하고 설득되었다면 그 설교는 진리가 없는 실패한 설교입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출발점으로 삼는다면 나의 마음 또한 하나님께 닿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괴로워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라는 저주의 자리는 하나님과 떨어지는 자리였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두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과 떨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겠다는 명목 아래에 그들의 마음을 받아들인다면 내 마음 또한 하나님과 떨어져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떨어졌으니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반성을 안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와서 본문의 말씀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아테네에서 하나님과 떨어지기를 자처했던 경험이 2절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라는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아테네 사람들의 마음을 출발점으로 받아들이고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할 때에도 여전히 바울에게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었

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과 마음이 떨어지게 되자 어떤 역사도 나타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증언하는 자의 마음에서는 항상 하나님과 연결이 이루어지고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활성화되어야만 합니다. 또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입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증언하는 것 외에 다른 말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아테네의 경험을 두려운 일로 여기며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 자폐증 환자가 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기에 예수께 마음을 드려야만 한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로 나의 마음도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한다. 내 말을 듣고 있는 당신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이 사실만을 무한 반복하는 자폐증 환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4절을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하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마음이 하나님께 닿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에 맞추어준다면 공감 감동 설득력은 물론이거니와 나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어떠한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닿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히 중립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떠한 대상이든 마음에 닿으면 그에 대한 공감과 감동과 설득이 일어나게 됩니다.
목사님이 주일에 교인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이때에 일주일간 세상과 어울렸던 교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떨어져서 각종 삶의 문제들에 닿아있는 상태입니다. 목사님들이 그 마음이 감동하기를 바라며 설득하고 공감하는 설교를 위해서는 성도들과 같은 마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과 공감할 때에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었던 것처럼 목사님의 마음도 하나님과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길은 오직 십자가 사건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 채 교인들에게 공감과 감동을 주려고 이루어지는 설교에는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4절의 말씀대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설교나 일상생활에서의 말이나 상대방의 마음 상태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상대방의 마음 상태를 관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상태가 대화의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닿아있지 않은 마음 상태에서 감동과 공감을 불러일으켰다면 진리를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증언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마음이 하나님께 가서 닿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 마음이 닿을 수 있다면 이 세상의 어떤 일들도 더는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보내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상호교감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폐증 환자처럼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에게 십자가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

람을 위로하겠다고 돈 버는 방법과 돈 빌리는 방법에 대해 공감한다면 둘 다 망할 뿐입니다. 아픈 사람에게 건강해지는 방법에 대해 공감하며 이야기하는 동안에 하나님과 떨어지게 됩니다. 듣는 사람이 황당하고 답답하게 여길 정도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증언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의식해야 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소통이나 배려가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배려 깊고 성숙한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우상시하는 본능에서 나온 죄일 뿐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상대를 배려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의 현실이 되셔야한다는 필연적 요청에 대해서만은 소통과 배려가 망하는 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현실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비로소 세상의 일들은 더는 문제로 여기지 않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진짜 문제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닿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을 문제로 여기는 것은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갔을 뿐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어떠한 소통이나 교감도 필요치 않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나타나시기 위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둘째로 성령이 나타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마음이 닿기 위한 유일한 길로써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증언되어야만 합니다. 굿 닥터에서 주인공이 '어린이는 살아서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생각으로 병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대처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모든 일들에 대처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돈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게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건강 문제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면 받아들일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을 통해 예상을 뛰어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이 돈이나 건강을 최고로 여기던 가치관을 뚫고 부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십자가가 증언되지 않는다면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공감할 수는 있을지라도 결국은 둘 다 망하는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한 설교나 말은 십자가 자폐증 환자가 될 때에만 가능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한 말씀의 의미가 이와 같습니다. 공감과 감동과 설득이 목적이 아닙니다. 상대가 처한 상황에 공감하고 말씀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도 아닙니다. 자폐증 환자처럼 십자가만을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굿 닥터에서 주인공이 자폐증으로 인해 갈등을 겪고 멸시를 받은 것처럼 사람들로부터 미친 사람 취급당하고 도외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과 몰이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전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붙잡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십자가를 붙잡았다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까지 참여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마음이 하나님께 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는

동안에 세상적인 가치관에 공감하며 그 상태를 출발점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5절을 보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50~60년 예수를 믿으시고도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오래 지속했는데도 변화가 없는 일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기독교인으로 산 시간이 이처럼 긴데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평생 동안 수십 수백 명의 목사님의 설교를 수 천 수 만 편은 들었을 것입니다. 교회에 가서 아멘을 외치고 말씀에 공감하기도 하고 설득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삶은 조금도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돈을 추구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까지 동원하여 돈을 추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마음이 닿아있는 상태에서 감동하고 설득되고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덧붙여진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세상을 추구하기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현실이 이렇게 반에 반 토막이 나고 말았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만 설교를 하고 대화를 하는 모든 목사님들이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듣는 교인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감동하고 설득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외 없이 교인들은 세상에 마음을 붙이고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이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교인들을 감동시키고 설득하려 한다면 성령이 나타나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의식하고 입으로 불러야 나타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 자폐증에 걸려서 세상 모든 일에 대해 십자가로 대처하게 된다면 성령은 나타나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기에 예수께 마음을 드려야만 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로 나의 마음도 십자가에서 죽었다. 당신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말을 잊지 않는다면 성령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설교와 대화 속에서 십자가가 빠지면 성령의 역사도 사라집니다. 아무리 성령이라는 단어를 많이 언급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반대로 성령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을지라도 생활현장에서 십자가 자폐증 환자로 살아간다면 성령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서번트 신드롬은 자폐 환자에게 나타나는 천재적 능력입니다. 의학적으로 보자면 좌뇌의 손상으로 인해 자폐증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때에 신체는 좌뇌의 기능을 보상하기 위해서 우뇌를 극단적으로 활성화시키게 되고 때로 천재적 성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십자가 자폐증 환자로 살아가는 동안에 서번트 증후군이 나타나듯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상대가 십자가 증언을 받아들이든지 않든지 그것은 나의 능력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 선택권이 주어지고 능력을 나타내실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십자가를 증언하지 않는다면 성령님께서 활동하실 어떠한 기회도 생겨나지 않

습니다.
말씀을 증언할 때에 우리는 공감이나 감동과 설득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어떤 상황에 처해있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 전해야 할 것은 십자가뿐입니다. 자폐증 환자처럼 십자가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굿 닥터에서 주인공이 어린이를 구하겠다는 한 가지 생각으로 병원 전체가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는 증언을 반복하는 동안에 나의 주변이 변해 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에 가면 대륙횡단용 고속버스인 그레이하운드가 있습니다. 몇 개의 주와 각 도시를 지나며 휴게소에도 들르고 화장실에도 들르고 합니다. 무려 7,000km를 이동하게 되지만 승객이 하는 일은 잠깐 내렸다가 올라타는 것뿐입니다.
세상은 자꾸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비전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노력하라,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라,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말들이 거짓말이고 오답입니다. 그레이하운드를 탄 사람이 7,000km를 가기 위해서 하는 일은 휴게소마다 내렸다 타는 것을 반복하는 것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에 마음 드리기를 반복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도 참여하여 하나님께 마음이 닿게 될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생각만을 가진 십자가 자폐증 환자가 되어서 세상을 대처해 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가나안 복지가 되고 에덴은 회복될 것입니다.
삶에서 이루어지는 가나안 복지나 에덴의 회복은 세상의 가치관대로 부귀영화를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가난하고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엘리트 코스를 달려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감사하기만 합니다. 오히려 오늘도 내일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주변을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주변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조차도 부귀영화를 위해 사용하는 자들은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형교회를 찾아가는 이유는 이렇게 대형교회를 이룬 목사님께 붙어서 같이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사업도 대형이 되고 인생도 대형이 되리라 여기는 것입니다. 지역 교회들은 다 죽어가는 가운데 몇몇 대형교회들만 북적거리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겨난 이유를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았을 때에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집과 평생을 일군 기업을 잃고 부랑자처럼 노숙자처럼 쫓겨 다니다가 안디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사람들이 보니 먹을 것 입을 것도 없고 잠잘 곳이 없는 사람들이 감사하면서 예수를 전합니다. 본문 2절의 '예수 그

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는 말씀처럼 예수를 증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특이하게 여기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데도 먹을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입을 것이 없는 데도 입을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던 안디옥은 어느덧 예루살렘의 촛불이 옮겨와 선교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전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자폐증 환자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나를 통해 성령님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바라시는 것은 성령님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 대해 죽은 자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서 닿기만을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셔 들여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성령님이 정말로 바라시는 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폐증 환자처럼 고집하며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닿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성령님께서는 오시고자 하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깨닫지 못한 채 이유 없이 성령을 부르고, 성령을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장비나 내 몸에 임하는 능력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성령이라는 장비를 갖춤으로써 사업에서 성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픈 사람은 성령이라는 장비를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코 이런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싶으시다면 십자가 자폐증 환자가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또 부활하고 승천하여 기필코 하나님께 닿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사실이 나의 현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없지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우리가 십자가 자폐증 환자가 될 수만 있다면 성령은 임하실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고백을 할 수 있고, 또한 그러한 고백만을 하는 자로 스스로를 폐쇄시킬 수 있다면 삶에서 성령의 나타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스스로 자폐증 환자가 되고자 한 사도 바울의 결단이 성령님을 통해 나의 결단이 되게 해주시고, 또 내가 말하고 설교하고 전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임하는 결단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십자가 자폐증 환자가 되는 것이 축복의 알파요 오메가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